

<http://dx.doi.org/10.17703/JCCT.2023.9.6.595>

JCCT 2023-11-71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사회심리적 건강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

The Mediating Effect of Resili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linic Practice Stress and Psychosocial Well-being of Nursing University Students

김미정*, 나은하**

Mi-Jung Kim*, Eun-Ha Na**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사회심리적 건강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파악하여 간호대학생의 사회심리적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은 J도와 G시의 2개 대학의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간호학과 3, 4년 175명으로 수집된 자료는 SPSS 23.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independent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을 하였고, Process macro 4.0 프로그램을 통해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간호대학생의 사회심리적 건강은 임상실습 스트레스($r=.472, p<.001$)와 양의 상관관계, 회복탄력성과($r=-.860, p<.001$)는 음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사회심리적 건강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간호대학생의 사회심리적 안녕감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낮추고, 회복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

주요어 : 임상실습 스트레스, 회복탄력성, 사회심리적 건강, 매개효과

Abstract This study attempted to provide basic data for developing strategies to improve the psychosocial well-being on nursing university students by identifying the mediating effect of resili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linic practice stress and psychosocial well-being of nursing university students.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175 nursing students in their 3rd and 4th year who had clinic practice experience at two universities in J province and G city. The SPSS/23.0 program was used to analyze the data with descriptive statistics; an independent t-test, analysis of variance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ediating effect analysis were performed using Process Macro 4.0. The psychosocial well-being of nursing university students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clinical practice stress ($r=.472, p<.001$), an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resilience ($r=-.860, p<.001$). Resilience showed a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psychosocial well-being.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necessary to development and apply systematic programs to reduce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increase resilience for improving the psychosocial well-being of nursing university students.

Key words : Clinic Practice Stress, Resilience, Psychosocial Well-being, Mediating Effect

*정회원, 광주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제1저자)
**정회원, 광주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교신저자)
접수일: 2023년 9월 5일, 수정완료일: 2023년 9월 15일
게재확정일: 2023년 11월 3일

Received: September 5, 2023 / Revised: September 15, 2023

Accepted: November 3, 2023

**Corresponding Author: naeh@gwangju.ac.kr
Dept. of Nursing, Gwangju Univ, Korea

I. 서 론

간호학은 실천철학을 지닌 응용과학으로 이론과 실습을 바탕으로 한다. 간호교육은 전문직간호사로서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를 학습하고 임상현장에서 통합하고 적용하는 방법을 습득하는 교육과정으로 이론교육과 함께 임상실습은 간호교육의 필수적 요소이다[1]. 간호대학생들은 임상실습을 통하여 학교에서 배운 이론을 실무에서 직접 관찰하고 적용해봄으로써 잠재력을 개발하고 창의력과 응용력을 길러 전문직 간호사로서의 기본적인 능력을 갖추게 된다[2].

대부분의 간호대학생들은 임상실습의 중요성에 대해 알고 있지만 이론과 실무현장과의 차이에서 오는 혼란과 낮은 환경, 실습기관의 부족으로 인한 비교육적 환경, 실습업무의 부담 및 역할갈등 등 다양한 원인으로 임상실습으로 인한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와 부정적인 경험을 한다는 연구결과[3][4]가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스트레스의 지속적인 경험은 간호학에 대한 불만과 만족도 저하를 초래하고 결국 우울[5], 소진[6][7], 정신건강[8][9] 등 심리적·정신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사회심리적 건강은 개인의 자원과 반응능력이 위협을 받아 발생하는 심리적·상황적 맥락에 영향을 받는 사회적 속성을 갖는 갈등상태[10]를 의미한다.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는 개인의 사회심리적 갈등을 유발하고, 갈등상태의 지속은 학업에 대한 자신감을 상실하게 하며 더 나아가 정서적 탈진, 냉소적 태도, 소진 등의 심각한 상황으로 악화될 수 있다[6][7]. 지속적인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간호대학생의 사회심리적 건강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미래의 임상현장에서 대상자에게 양질의 간호 제공과 전문인으로서 직업적 만족 및 타인을 잘 돌보기 위하여 간호대학생들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관리와 사회적 심리건강을 위한 방안마련이 요구된다[11].

간호대학생들이 임상실습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이겨내고, 역경을 기회로 삼아 성숙한 경험으로 바꾸는 회복탄력성은 미래의 간호사로 성장할 간호대학생들에게 매우 필요한 요건이다[12]. 회복탄력성(Resilience)은 역경에 직면했을 때 이를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대처하는 개인적 특성을 의미한다[13]. 회복탄력성이 높을수록

스트레스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다양한 상황에서 융통성있게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정서지능과 심리적 안정감, 삶의 질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4-16]. 지금까지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사회심리적 건강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이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정신건강과의 관계 연구 등이 있을 뿐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확인한 논문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들의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회복탄력성, 사회심리적 건강의 관계를 확인하고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사회심리적 건강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임상실습에서 오는 스트레스에 잘 대처하고, 사회심리적 안정을 증진시키는 중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그림 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으며,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대학생의 사회심리적 건강은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양의 상관관계, 회복탄력성과 음의 상관관계를 가질 것이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사회심리적 건강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은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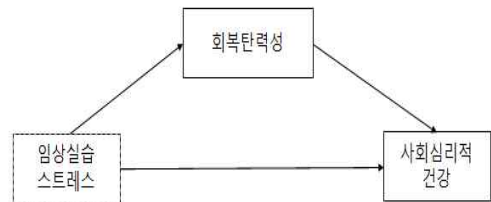


그림 1.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사회심리적 건강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 모형

Figure 1. Mediating effect model Resilience between Clinic practice stress and Psychosocial well-being

II. 본 론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사회심리적 건강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자는 J도와 G시에 소재한 2개 대학의 임상실습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간호학과 3, 4학년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료수집 기간은 2023년 9월 8일부터 2023년 9월 12일까지이다. 대상자 수를 산정하기 위해 G-power program 3.1.9 version을 사용하였고, 회귀분석을 위해 투입변수는 9개(일반적 특성 6개, 연구변수 3개), 유의수준 0.05, 효과크기 0.15, 검정력 0.95을 적용한 결과 최소 표본 수는 최소 166명이었다. 탈락률 10%를 고려하여 182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여 179부(98.3%)를 회수하였고 이 중 응답이 불충분한 설문지 4부(2.19%)를 제외한 총 175부(96.1%)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3. 연구도구

1) 임상실습 스트레스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Beck과 Sriavastava(1991) [17] 등의 선행 연구를 기초로 김순례, 이종은(2005) [18]이 수정, 보완한 5개 영역의 총 24문항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도구는 실습교육환경(5문항), 바람직하지 못한 역할 모델(6문항), 실습업무부담(4문항), 대인관계 갈등(4문항), 환자와의 갈등(5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5점 Likert 척도로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높음을 의미한다. 김순례와 이종은(2005) [18]이 개발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 .91$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 .93$, 실습교육환경 .82, 바람직하지 못한 역할모델 .83, 실습업무부담 .75, 대인관계 갈등 .75, 환자와의 갈등 .89였다.

2) 회복탄력성

회복탄력성은 양영희 등(2015) [12]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하고 타당도를 분석한 7개 영역의 총 24문항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도구는 자신감 3문항, 관계성 4문항, 긍정성 4문항, 대처능력 2문항, 사회적지지 4문항, 감정조절능력 4문항, 조직적 스타일 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5점 Likert 척도로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회복탄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4$ 였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96$ 으로 하위영역은 자신감 .93, 관계성 .89, 긍정성 .87, 대처능력 .77, 사회적지지 .71, 감정조절능력 .89, 조직적

스타일 .83이었다.

3) 사회심리적 건강

사회심리적 건강은 예방의학회의 장세진(2000) [10]이 개발한 사회심리적 건강척도(Psychosocial Well-being Index) 단축형으로 4개 영역의 총 18문항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심리적 건강수준이 낮음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0$,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97$ 이었다.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3.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임상실습 스트레스, 회복탄력성, 사회심리적 건강의 정도는 기술통계를 이용하였다.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스트레스, 회복탄력성, 사회심리적 건강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와 ANOVA로 분석하고, 사후 검정으로 Scheffé test를 실시하였다.

셋째, 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이용하였다.

넷째,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사회심리적 건강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 program의 모델 4번을 이용하였다.

III.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연령은 20대가 149명(85.1%), 30세 이상이 26명(14.9%)였고 3학년이 124명(70.9%), 4학년이 51명(29.1%)였다. 간호학과 지원동기는 취업률이 110명(62.9%), 적성이 34명(19.4%), 지인의 권유가 16명(9.1%), 성적 및 기타 15명(8.6%) 순이었고, 직전학기 성적은 3.5~3.9가 98명(56.0%)으로 가장 많았다. 전공만족도는 만족이 79명(45.1%), 보통이 65명(37.1%), 매우 만족이 26명(14.9%), 불만족이 5명(2.9%) 순이었고, 임상실습 만족도는 만족이 76명(43.4%), 보통이 69명(39.4%), 매우 만족이 19명(10.9%), 불만족이 10명

(5.7%), 매우 불만족이 1명(0.6%) 순이었다<표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간호학과 지원동기동기($p=.001$), 직전학기 성적($p=.002$), 전공만족도($p=.011$), 임상실습 만족도($p<.001$)에, 회복탄력성은 나이($p=.020$), 학년($p<.001$), 간호학과 지원동기($p=.001$), 직전학기 성적($p<.001$), 전공만족도($p<.001$), 임상실습 만족도($p=.002$)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회심리적 건

강은 학년($p<.001$), 간호학과 지원동기($p=.004$), 직전학기 성적($p<.001$), 전공만족도($p<.001$), 임상실습 만족도($p=.001$)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 검정 결과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직전학기 성적이 3.0이하보다 3.5~3.9, 4.0 이상에서 더 높게 나타났고, 회복탄력성과 사회심리적 건강은 직전학기 성적이 3.5~3.9 보다 4.0 이상에서 더 높게 나타났<표 1>.

표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스트레스, 회복탄력성, 사회심리적 건강의 정도

Table 1. Differences of Clinic practice stress, Resilience, Psychoical well-being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75)

Variable	Categories	n(%)	Clinic practics stress		Resilience		Psychosocial well-being	
			M±SD	t or F(p) Scheffé	M±SD	t or F(p) Scheffé	M±SD	t or F(p) Scheffé
Age(year)	21-29 ^a	149(85.1)	2.82±0.65	-.222 (.825)	3.31±0.60	-2.411 (.020)	2.67±1.05	.822 (.412)
	≥30 ^b	26(14.9)	2.85±0.60		3.73±0.52		2.44±0.91	
Year in college	3th	124(70.9)	2.85±0.65	.947 (.345)	3.36±0.73	-4.620 (<.001)	2.83±1.05	5.013 (<.001)
	4th	51(29.1)	2.75±0.64		3.80±0.50		2.16±0.67	
Application motivation	Employment rate	110(62.9)	2.96±0.65	6.145 (.001)	3.33±0.74	5.595 (.001)	2.83±1.07	4.565 (.004)
	Highschool grades & other	15(8.6)	2.60±0.51		3.65±0.46		2.55±0.90	
	Aptitude	34(19.4)	2.47±0.58		3.81±0.53		2.16±0.70	
	Recommendation	16(9.1)	2.83±0.55		3.75±0.60		2.40±0.83	
Grades	<3.0 ^a	12(6.9)	2.28±0.60	5.357 (.002)	3.55±0.43	7.173 (<.001)	2.74±0.83	7.198 (<.001)
	3.0-3.4 ^b	47(26.9)	2.67±0.59		3.64±0.60		2.27±0.78	
	3.5-3.9 ^c	98(56.0)	2.94±0.57		3.30±0.74		2.91±1.06	
	≥4.0 ^d	18(10.3)	2.97±0.91		4.03±0.53		2.05±0.75	
Satisfaction on nursing major	Unsatisfied	5(2.9)	3.03±0.22	3.837 (.011)	3.65±0.32	7.061 (<.001)	2.33±0.55	6.498 (<.001)
	Moderate	65(37.1)	2.98±0.54		3.22±0.71		3.02±0.99	
	Satisfied	79(45.1)	2.65±0.66		3.56±0.68		2.53±0.98	
	Very satisfied	26(14.9)	2.92±0.78		3.90±0.55		2.10±0.84	
Satisfaction on clinical practice	Very unsatisfied	1(0.6)	2.66±0.00	6.785 (<.001)	4.04±0.00	4.447 (.002)	2.00±0.00	5.019 (.001)
	Unsatisfied	10(5.7)	2.54±0.56		3.80±0.21		2.13±0.61	
	Moderate	69(39.4)	3.11±0.44		3.28±0.73		2.98±1.02	
	Satisfied	76(43.4)	2.67±0.73		3.51±0.68		2.56±0.93	
	Very satisfied	19(10.9)	2.53±0.58		3.95±0.57		2.02±0.98	

2. 임상실습 스트레스, 회복탄력성, 사회심리적 건강의 정도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2.82점(5점 만점)이었고, 하위영역으로 실습업무 부담 3.29점, 실습교육환경 3.22점, 바람직하지 못한 역할 모델 2.60점, 환자와의 갈등 2.59점, 대인관계 갈등 2.48점 순이었다. 회복탄력성은 3.49점(5점 만점)이었고, 하위영역으로 관계성 3.72점, 사회적지지 3.69점, 자신감 3.44점, 대처능력 3.37점, 감정조절능력 3.37점, 조직적 스타일 3.05

점, 긍정성 2.55점 순이었다. 심리사회적 건강은 2.64점(5점 만점)이었다<표2>.

3. 임상실습 스트레스, 회복탄력성, 사회심리적 건강의 상관관계

간호대학생의 사회심리적 건강은 임상실습 스트레스($r=.472$, $p<.001$)와 양의 상관관계, 회복탄력성($r=-.860$, $p<.001$)과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복탄력성은 임상실습 스트레스($r=-.401$,

$p<.001$)와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즉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회복탄력성이 낮을수록 사회심리적 건강수준이 낮음을 의미하며 연구 가설 1은 성립되었다.

4.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사회심리적 건강과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사회심리적 건강과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Hayes[21]가 제안한 PROCESS macro에서 model 4를 사용하였다.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랩 샘플 5,000개로 지정하였고, 신뢰구간은 95%로 설정하였다. 분석한 결과 <표 4>와 <그림 2>와 같이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회복탄력성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beta=-.437, p<.001$), 회복탄력성은 사회심리적 건강에 유의한 영향을 주어($\beta=-1.140, p<.001$)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회복탄력성과의 사이에서 매개하였다.

표 2. 임상실습 스트레스, 회복탄력성, 사회심리적 건강의 정도

Table 2. Degree of Clinic practice stress, Resilience and Psychosocial well-being (N=175)

Variables	Range	M±SD	Skewness	Kurtosis
Clinic practice stress	1-5	2.82±0.64	.04	-.24
Inadequate clinic environment		3.22±0.76	-.29	-.51
Unadvisable role model		2.60±0.73	.63	.97
Load of work and assignment		3.29±0.78	-.11	-.72
Interpersonal conflict		2.48±0.78	.33	.13
Relationship with patient		2.59±0.93	.27	-.84
Resilience	1-5	3.49±0.70	-.17	-.52
Confidence		3.44±0.91	-.30	-.85
Relationship positivity		3.72±0.68	-.01	-.40
Coping ability		2.55±0.77	.64	.77
Social support		3.37±0.68	-.06	.79
Abilities to control emotion		3.69±0.67	.06	-1.19
Organizational style		3.37±0.90	-.09	-1.03
Psychosocial well-being	1-5	3.05±0.89	.15	-.44
		2.64±1.00	.53	-.44

표 3. 임상실습 스트레스, 회복탄력성, 사회심리적 건강의 상관관계

Table 3. Correlation among Clinic practice stress, Resilience and Psychosocial well-being (N=175)

Variables	F1	F2	F3
	r(p)	r(p)	r(p)
Clinic practice stress	1		
Resilience	-.401 (<.001)	1	
Psychosocial well-being	.472 (<.001)	-.860 (<.001)	1

† F1=Clinic practice stress, F2=Resilience, F3=Psychosocial well-being

즉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사회심리적 건강의 총 효과는 $\beta=.734(p<.001)$ 이었으며 매개변수인 회복탄력성이 투입되면서 사회심리적 건강에 대한 회복탄력성의 직접 효과는 $\beta=.236(p<.001)$ 로 감소하여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 가설 2도 성립되었다.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회복탄력성의 간접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사용하였고, 검증 결과 부트스트래핑의 상한값과 하한값 사이에서 0이 존재하지 않아 간접효과가 검증되었다<표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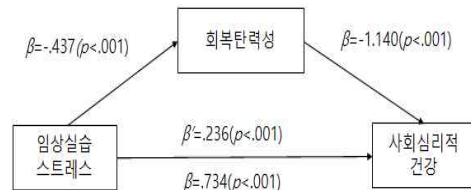


그림 2.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사회심리적 건강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

Figure 2. Mediating effect of Resilience between Clinic practice stress and Psychosocial well-being

IV. 고 찰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회복탄력성, 사회심리적 건강의 관계를 파악하고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사회심리적 건강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규명하고자 시도되었다.

대상자의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2.82점(5점 만점)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임상실습을 경험한 3, 4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5][19]에서 2.73~

표 4.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사회심리적 건강과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

Table 4. Mediating effect of Resilience between Clinic practice stress and Psychosocial well-being

(N=175)

Variables	β	S.E	t	p	95% CI	
					LLCI	ULCI
Clinic practice stress → Resilience	-.437	.076	-5.754	<.001	-.587	-.287
Resilience → Psychosocial well-being	-1.140	.058	-19.551	<.001	-1.255	-1.025
Clinic practice stress → Psychosocial well-being	.236	.058	3.710	<.001	.110	.361
Clinic practice stress → Resilience → Psychosocial well-being	.734	.104	7.043	<.001	.528	.940
F=49.612(<.001), R ² =.222						
Mediating effect significance verification						
	Effect	Boot SE	95% CI			
			Boot LLCI	Boot ULCI		
Total Effect	.734	.104	.528	.940		
Direct Effect	.236	.063	.110	.368		
Indirect Effect	.498	.134	.240	.765		

3.01점으로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으나 고정미(2017) [6]의 연구에서는 3.36점, 코로나19 시기에 첫 임상실습을 수행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4]에서 2.40점으로 본 연구결과와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코로나19 등의 외부적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사료되며 임상실습 1,000시간을 이수하지 못하면 졸업과 취업에 대한 우려와 실습을 무사히 마치게 된 안도감이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감소시켰다는 연구[4]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간호학과 지원동기, 직전학기 성적, 전공만족도, 임상실습 만족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 선행연구[5] 결과와 일부 일치하였다. 사후 검정 결과 직전학기 성적이 3.0이하보다 3.5~3.9, 4.0이상의 학생에서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더 높게 나타나 성적관리나 경쟁의식이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임상실습의 목표와 의미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실습의 절대평가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겠다.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하위영역으로 실습업무 부담, 실습교육환경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바람직하지 못한 역할 모델, 환자와의 갈등, 대인관계 갈등은 낮게 나타나 선행연구[4][5]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는 열악한 임상실습 교육현황을 반영한 결과로 실습학생 대비 실습기관의 부족, 기관 내 학생을 위한 공간과 시설의 미흡, 교육에 대한 배려 부족, 비교육적 실습환경, 과다하거나 실습의 목적에 맞지 않는 과제, 대상자의 사생활 보호 등의 문제로 실습경험의 제한 등이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연구결과[3][5][20]와 일맥상통한다.

따라서 간호대학생들의 임상실습 목적과 자신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인지와 교육환경 조성이 요구된다. 이를 위하여 실습 오리엔테이션시 각 교과별 임상실습의 목적과 병원의 특성, 학생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하고, 실습의 내실화를 위한 임상실습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 국가적 차원의 임상실습 교육정책의 변화와 지원이 필요하겠다[2][22].

회복탄력성은 3.49점(5점 만점)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임상실습을 경험한 3,4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5][7]에서 3.49~3.56점으로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회복탄력성은 수업과 임상실습을 통해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이겨내고 미래의 간호사로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12] 간호대학생의 회복탄력성은 보통 이상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회복탄력성은 학년, 간호학과 지원동기, 직전학기 성적, 전공만족도, 임상실습 만족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나이가 많을수록, 학년이 높을수록, 직전학기 성적이 3.5~3.9보다 4.0 이상인 경우,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회복탄력성은 높게 나타나 선행연구[5]의 결과와 일부 일치하였다.

회복탄력성의 하위영역으로 관계성, 사회적지지는 높게 나타났으나 자신감, 대처능력, 감정조절능력, 조직적 스타일, 긍정성은 평균 점수보다 낮게 나타났다. 선행연구[3][5][7]에서는 사회적지지, 관계성, 긍정성, 자신감이 높게 나타났고, 대처능력, 감정조절능력, 조직적 스타일이 낮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다소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긍정성 즉, 감사하는 마음이나 미래에 더 나아진 나의 모습 등에 대한 문항, 조직

적 스타일 즉, 공부하는 시간과 재충전하는 시간의 관리, 일상업무의 계획 등에 대한 문항의 점수가 낮게 나와 선행연구[3][5][7] 결과와 일치하였다. 임상현장은 복잡하고 간호사가 처리해야 할 일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신속·정확한 업무판단과 최소한의 시간안에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요구한다. 또한, 대상자의 상태변화를 빠르게 인지하고 대처하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침착함과 대처능력도 중요하다. 그러나 간호대학생들은 타전공에 비해 학업양이 많고, 이론과 실습의 병행, 국가고시와 취업 준비 등으로 개인의 내적 역량 강화를 위한 시간도 없이 간호현장으로 배치된다. 그러나 이러한 능력이 부족하게 되면 처리할 일이 점차 누적되어 과중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된다[3]. 대처능력, 감정조절, 조직적 스타일, 자신감, 긍정성은 단기간에 변화되기 어렵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이 교육이 요구되기 때문에 대학시절부터 이를 개선시키기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교육과정에 자기관리 프로그램과 다양한 상황을 반영한 실습교육이 필요하겠다[7].

사회심리적 건강은 2.64점(5점 만점)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23]에서 3.29점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차이를 보였다. 이는 이현숙(2022)의 연구[23]는 1, 2학년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본 연구는 3, 4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대상자의 차이가 있으며, 코로나19라는 환경적 요인으로 사회활동이나 대인관계에 제약 등이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 사료된다. 추후 대상자의 특성과 환경적 요인을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겠다. 사회심리적으로 건강할수록 업무과정에서 스트레스와 갈등을 극복하고, 실무를 더 잘 수행하며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1].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사회심리적 안녕 수준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정과 다양한 적응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2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심리적 건강은 학년, 간호학과 지원동기 직전학기 성적, 전공만족도, 임상실습 만족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 선행연구[23]의 결과와 일부 일치하였다. 그러나 4학년보다 3학년에서 사회심리적 스트레스가 더 높게 나타나 학년이 높아질수록 실습, 취업, 국가고시 등의 스트레스를 받지만 그 과정에서 자기관리와 적응능력이 향상되었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15]. 그러나 간호대학생 299명을 대상으로 한 변은경, 양현주(2020)의 연구[25]에서는 연령이 어릴수록, 학년이 낮

을수록, 전공만족도와 대학생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정신적 웰빙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차이를 보여 추후 정신건강의 수준과 일반적 특성의 비교연구가 필요하겠다.

간호대학생의 사회심리적 건강은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양의 상관관계, 회복탄력성과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 가설 1은 성립되었다. 즉,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회복탄력성이 낮을수록 사회심리적 건강수준은 낮게 나타났다. 이는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실습소진[6][7], 정신건강[9]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접촉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정서적 고갈이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6]. 또한,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회복탄력성과 부적 상관관계, 우울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으며 회복탄력성과 우울이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낸 박홍주, 김남희(2020)의 연구[5] 결과와 유사하다. 3, 4학년의 간호대학생은 이론수업과 함께 실습을 병행하면서 실습의 스트레스가 가중될수록 개인의 상황을 통제할 수 없음을 느끼며 정서적 탈진, 냉소적 태도, 학업에 대한 자신감 상실과 같은 소진의 경험정도가 높아진다[6][9]. 임상실습 시에 낮은 병원 환경과 실수에 대한 불안감, 이론과 실무의 gap, 과도한 과제, 역할갈등,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 대인관계 등으로 인해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와 부정적인 경험은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준다[3][9].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사회심리적 안녕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임상의 실제 현장에 대한 충분한 사전경험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중 시뮬레이션 수업을 통한 실습 스트레스를 줄이고, 현장에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8].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사회심리적 건강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은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 가설 2도 성립되었다.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회복탄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회복탄력성은 사회심리적 건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위의 변수들 간의 관계 연구를 찾아보기는 어려웠으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회복탄력성 연구를 분석한 연구[26],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와 삶의 질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과 삶의 의미의 매개효과 연구[15],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소진 간의 관계에서 감성지능의 조절효과 연구[6], 대학생의 사회심리적 건강과 삶의 만족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 연구

[23]의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간호대학생은 주로 임상실습 상황 자체를 역경으로 인지하여 불안이나 스트레스로 표출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회복탄력성을 개발하고 강화함으로써 자신의 감정에 대한 인지와 조절이 가능하고 타인을 이해하는 능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원활한 대인관계와 대학생활적응, 삶의 질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26][27]. 따라서 미래의 전문직 간호사로서 역할을 수행해야하는 간호대학생의 사회심리적 건강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줄이고 회복탄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실제적인 방안 마련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단기간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므로 학교에서부터 사회교육기관에 이르기까지 사회심리적 건강수준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

V. 결 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회복탄력성, 사회심리적 건강의 관계를 확인하고,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사회심리적 건강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사회심리적 건강은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양의 상관관계, 회복탄력성과는 음의 상관관계로 나타났고,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사회심리적 건강과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은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 2가 성립되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사회심리적 건강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임상실습의 목적과 학생의 역할을 명확히하고, 교육과정 및 실습과제 등의 개선을 위한 학생 및 교수자의 노력, 임상실습환경의 개선을 위한 기관과의 협조, 회복탄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프로그램의 적용, 국가적 차원의 임상실습 교육정책의 변화와 지원이 필요하겠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일부 지역의 임상실습을 경험한 3, 4학년 간호대학생을 연구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결과를 확대해석하는데 제한점이 있어 추후 대상을 확대한 연구를 시행할 것을 제언한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사회심리적 건강에 관련된 연구는 미비한 수준으로 추후 관련 연구와 사회심리적 건강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변수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의 시행을 제언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사회심리적 건강도구는 측정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심리적 건강수준이 낮음을 의미하는 도구로 유사하게 사용되는 '사회심리적 안녕'이라는 단어와는 반대개념으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 대한 가독성을 향상시키는 도구를 사용하여 사회심리적 건강을 측정할 것을 제언한다. 넷째,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을 밝히는 연구가 필요하겠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낮추고 회복탄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검증의 연구를 제언한다.

References

- [1] N.S. Ha, M.S. Choi, "The relationship between leadership and self-esteem, satisfaction of clinic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Vol, 11, No, 1, pp. 13-21, 2005.
- [2] A.K. Lee, H.S. You, and I.H. Park, "Affecting factors on stress of clinic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Vol, 21, No, 2, pp. 154-163, March 2015.
- [3] Y.J. Lim, "The mediating effect of resilience on relationship between clinic practice stress and nursing professional values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19, No, 8, pp. 649-664. 2019. DOI : 10.22251/jcci.2019.19.8.649
- [4] K.H. Lee, "Factor influencing clinic practice stress of nursing students who performed their first clinic practice during the COVID-19,"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22, No, 21, pp. 715-727, 2022. DOI : 10.22251/jcci.2022.22.21.715
- [5] H.G. Park, N.H. Kim, "Relationship between clinical practice stress, resilience, and depression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yungpook Nursing Science*, Vol, 24, No, 2, pp. 21-29, 2020. DOI : 10.38083/JKNS.24.202008.021
- [6] C.M. Ko, "Effect of empowerment and emotional intellig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linic practicum stress and burnout among nursing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Stress Research*, Vol, 25, No, 2, pp. 120-127, 2017. DOI : 10.17547/kjsr.2017.25.2.120

- [7] H.J.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practice burnout in nursing students : mediating effect of resilience,” Seoul Cyber University of Education master’s thesis, 2021.
- [8] H.G. An,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of clinical practice and mental health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 8, No, 6, pp. 2249–2263, December 2006.
- [9] E.H. Jang, “The mediating effect of resilience and meaning in life between stress and quality of life o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9, No, 3, pp. 91–99, 2018. DOI : 10.15207/JKCS.2018.9.3.091
- [10] S.J. Chang, Standardization of health statistic data collection and measurement, The Korean Society for Preventive Medicine, Seoul: Gyechuk Munhwasa, 2000.
- [11] J.Y. Lee, M.J. Lee, and S.Y. Park, “The impact of psychosocial health and self-nurturance on graduate nurse experience,”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Vol, 21, No, 5, pp. 459–468, December 2015. DOI : 10.11111/jkana.2015.21.5.459
- [12] Y.H. Yang, E.M. Kim, M. Yu, S.M. Park, and H.Y. Lee, “Development of the resilience scale for Korean nursing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Vol, 27, No, 3, pp. 337–346, June 2015. DOI : 10.745/kjan.2014.27.3.37
- [13] K.M. Connor, and J.R.T. Davidson, “Development of a new resilience scale : The Connor-Davidson resilience scale(CD-RISC),” *Depression and Anxiety*, Vol, 18, no, 2, pp. 76–82, 2003.
- [14] B.M. Gillespire, W. Chaboyer, Wallis, and P. Grimbeek, “Resilience in the operating room : developing and testing of a resilience model,” *Journal of Advanced Nursing*, Vol, 59, no, 4, pp. 427–438, 2007. DOI : 10.1111/j.1365-2648.2007.04340.x
- [15] K.H. Lee, “Factor influencing clinic practice stress of nursing students who performed their first clinic practice during the COVID-19,”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19, No, 24, pp. 385–403, 2019. DOI : 10.22251/jcci.2019.19.24.385
- [16] S.M. Hong, “Convergence among emotional intelligence, psychological well-being and social support on resilience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Research*, Vol, 3, No, 4, pp. 1–10, December 2019. DOI : 10.34089/jknr.2019.3.4.1
- [17] D.L. Beck, R. Sriavastava, “Perced level and sources of stress in baccalureat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Vol, 30, No, 3, pp.127–133, 1991.
- [18] S.L. Kim, J.E. Lee, “Relationship among stress, coping strategies, and self-esteem in nursing students taking clinical experienc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1, No, 1, pp. 98–106, 2005.
- [19] M.S. Lee, “The relationship between grit, academic self-efficacy, clinic practice stress, and adjustment to college lif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24, No, 4, pp. 170–179, 2023. DOI : 10.5762/KAIS.2023.24.4.170
- [20] Y.J. Koo, “Correlations among self-directed learning, confidence of performance in core nursing skills,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and clinical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9, No, 1, pp. 501–511, January 2023. DOI : 10.17703/JCCT.2023.9.1.501
- [21] A.F. Hayes, “An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 A regression-based approach, New York, NY: Guilford.
- [22] G.A. Kim, “A systemic of literature in clinical practice research for nursing stud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Vol, 10, No, 3, pp. 39–46, 2022. DOI : 10.17703/IJACT.2022.10.3.39
- [23] H.S. Lee, “The effect of psychosocial well-being on life satisfaction for 1st & 2nd grade college students under COVID-19 : resilience as a mediating factor,”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Vol, 13, No, 1, pp. 1557–1571, 2022. DOI : 10.22143/HSS21.13.1.109
- [24] S.S. Sim, “Relationship among psychosocial well-being, emotional intelligence, college life adjustment in nursing students experienced COVID-19 situation,”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22, No, 4, pp. 809–819, 2022. DOI : 10.22251/jcci.2022.22.4.809
- [25] E.K. Byun, H.J. Yang, “Effect of ego resilienc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on mental health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Vol, 6, No,

4, pp. 85-93, 2020. DOI : 10.17703/JCCT.2020.6.4.
85

- [26]K.S. Seo, Y.H. Min, and H.Y. Lee, "Ego-resilience of nursing students in Korea : An integrative review," *Journal of Health and Medical Science*, Vol, 5, No, 1, pp. 25-33, 2016.
- [27]C. Wong, K. Law, "The effects of leader and follower emotional intelligence on performance and attitude : an exploratory study," *Leadersh Q*, Vol, 13, pp. 243-274, 2002.

※이 연구는 2023년도 광주대학교 대학 연구
비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